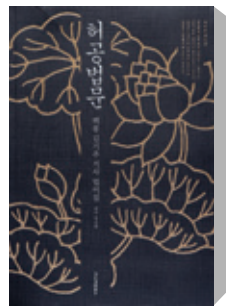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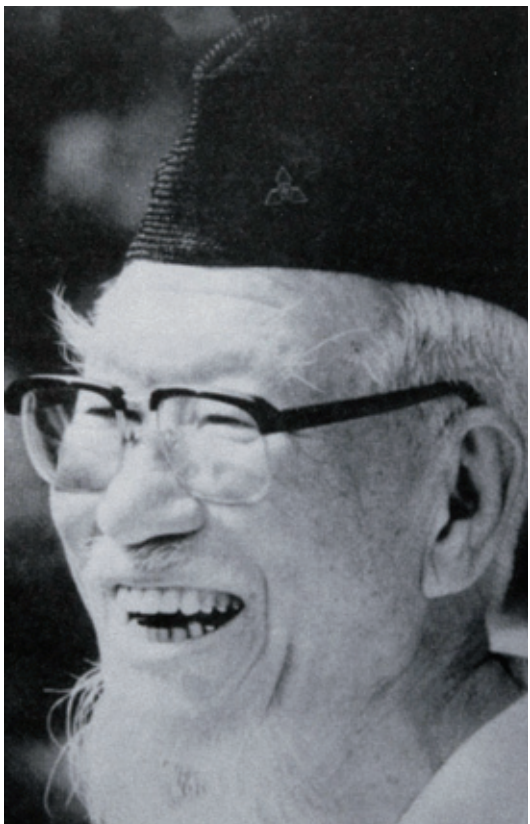


백봉 김기추 거사 법어집 발간

“내가 부처라 생각해야 부처공부 하지”



“실로 이 우주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30년 전 부산 남천동 보림선원에서 백봉 거사가 대중들에게 설법한 말이다. 백봉 거사의 본명은 김기추(金基秋)이며, 1908년 음력 2월 2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 항일 민족운동을 벌이다 부산형무소에서 1년 간 복역한 뒤, 만주 땅에서 ‘불령조선인(不逞朝鮮人)’으로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광복 후, 교육 사업을 하다 50세에 불법(佛法)을 만난 뒤로 속가에 머물면서 거사풍(居士風) 불교를 일으켰다. 그 후 1985년 8월 2일 보림선원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78세의 나이로 모음을 거뒀다. 최근 이런 백봉 김기추 거사의 법어를 모은 《허공법문》이 책으로 출간됐다.

책은 생전의 백봉 거사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를 정리한 것으로,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장에는 백봉 거사의 수행과 삶, 둘째·셋째 장에는 백봉 거사

가 저술한 《금강경강송》 《유마경대강론》 《선묘법요론》 《백봉선시집》 《절대성과 상대성》을 텍스트로 삼아 설법한 내용, 넷째 장에는 《선묘법요론》에 대한 법문, 다섯째 장에는 《백봉선시집》에 관한 법문을 수록했다.

백봉 거사의 법어를 엮은 저자 장순용은 “백봉 거사는 57세에 화두를 잡고 1년도 되지 않아 ‘확철대오(깨달음)’ 해 육조혜능 대사처럼 돈오를 재현했다”고 말했다. 당시 백봉 거사가 대오했다는 소식은 승가에도 전해져 청담 스님에겐 출가를, 해암 스님에겐 재가 설법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이후 백봉 거사는 “불법은 머리를 쥐고 안 쥐고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재가에서 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거사는 경전이나 선어록에 대해 전통적인 해설보다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토대로 설법을 펼쳤다.

백봉 거사의 설법은 일정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전통을 고수하기 보단, 늘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수행방법을 제시했다. 스스로도 좌선보다는 동선(動禪)을 강조했다. 특히 공리(空理)의 방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진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든 상대성을 넘어선 절대적인

주체적인 근원으로 제시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근본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것도 우리의 권리로써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봉 거사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근간으로 새로운 화두라는 뜻의 ‘새말귀’를 제시했다. 전통적 화두 수행이 승려들을 위한 것이라면, 새말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게 일하는 재가 수행자를 위해 창안됐다. 세수를 하든, 밥을 먹든, 운전을 하든, 일상생활 전부를 화두로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재가수행자에게 어울리는 계율과 수행방법을 제시했다.

백봉 거사는 “자기 자신을 중생이란 틀에 가두면 공부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스스로를 부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부는 뭔가 모자란 점을 채우거나 더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가 아닌, 본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사는 “미혹한 부처라도 부처가 부처 공부 하는 것이지, 부처가 아니면 부처 공부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순용 편자 | 고려원북스 | 1만5000원
이은경 기자 soej3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5~1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사벽의 대화	지허	도피안사
4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아침을 여는 365일 행복편지	법상	조계종출판사
9	입보살행론	산티데바	부디가야
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종범 외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법(佛法)이 가장 쉬웠어요!

민족사, ‘왕초보 시리즈’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발간

불교는 오랫동안 한국 땅에서 역사와 전통과 함께 뿌리내려 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된 경전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수행법은 일반인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장애물 역할을 한다.

이런 초보불자들을 위해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왕초보 시리즈’와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민족사는 최근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 <생활명상> <위빠사나> <관세음보살> <사심구제> 등을 새롭게 펴냈다.

‘왕초보 시리즈’는 진짜 ‘왕초보’들을 위해 전문적인 깊이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누구나 읽기 쉽게 풀어냈다.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역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보다 더 실용적인 지침을 담아낸 책들이다.

이은경 기자

초보불자도 혜능처럼 깨달을 수 있다

육조혜능의 행적과 구도 과정, 법문과 문답 등을 수록한 이 책은, 육조혜능 대사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와 법어집이다. 선사의 법어집인 《육조단경》이 경전의 정초까지 불으며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온 것은, 혜능이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서 보여준 평상시의 모습 때문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고, 자신도 혜능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젖게 됐다.

《육조단경》에는 선(禪)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실 속에서 선 체험의 경지를 다양하게 드러냈고, 이것이 후대 선법의 자연스러운 대세가 됐다. 《육조단경》은 북종선에 대한 남종 선의 우월성, 점수보다 돈오를 내세웠다. 당시 좌선 위주의 점수를 극복하고자 돈오를 세상에 전했다. 교(敎)와 선(禪)이 모두 녹아있지만 선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육조단경》이다.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는 육조혜능의 생애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불교를 전혀 모르던 독자들에게 육조혜능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욱 지음 | 민족사 | 9500원

마음 다스리면 몸도 건강해져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이제 단순히 불교 수행과정 이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마음가짐에 대한 관심은 서구사회에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생활명상》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 취침에 들기까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면 명상, 설거지 명상, 출퇴근길 명상, 세면 명상 등을 소개하며 감정을 닦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명상을 제시한다.

《위빠사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빠사나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수행자를 변화시켜 지혜를 키워나가게 한다. 시작, 진행,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해 위빠사나의 의미와 수행법, 진행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김남선 지음 | 민족사 | 정준영 지음 | 민족사 | 6500원

불교의 신행과 문화를 현대적 조명

현대인들은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적어도 일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존재 이유를 밝히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地藏보살 등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사심구제》는 49재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노무현 대통령도 김수경 추기경도 49재를 통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했다. 책은 49재의 불교적 조명뿐만 아니라, 인문학, 민속학 등을 통해 49재의 가치와 의미, 실천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탈상기간이 왜 49일인가에 대한 이유를 시작으로, 49재의 의례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49재를 치르는 다양한 방법과 유족들의 처신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호성 지음 | 민족사 | 구미래 지음 | 민족사 | 6500원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불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는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